



발간년월 2020년 2월(제16호) 발행처 (재)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 주 소 (25798) 강원도 동해시 공단1로 177 자유무역지역관리원 3층
자료문의 (재)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 물류연구기획팀 담 당 물류연구기획팀장 총 괄 이사장 Tel 033-522-6503 Fax 033-522-6505



NLRSC
Monthly Newsletter vol. 16
블라디보스톡 Golden Bridge

Contents

● 주요 이슈

- ▶ 러시아 비즈니스 스쿨(ROST) 프로그램

● 항만물류 통계

- ▶ 2020년 1월 수출입 현황
- ▶ 국내 수산물 수입 현황
- ▶ 러시아 선도개발구역 및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현황

● 항만·물류 정책 동향

- ▶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시행

● 주변국 국제동향

- ▶ 러시아 동향
- ▶ 북미항로 동향

● 용어사전

- ▶ 자유무역지역

주요 이슈

■ 지난해 11월 강원영서지역 기업들과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개최한 ROST 프로그램 참여

지난해 11월 본 센터는 강원영서지역 기업들과 함께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개최한 ROST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음. ROST 프로그램에서는 러시아 현지 사업 진출과 극동러시아 주요 정부기관 관계자와 미팅, 견학, B2B 등을 시행하였음

■ 2019 러시아 비즈니스 스쿨(ROST : Russian-Asian Business School) 주요내용(2019.11.19. ~ 24.)

- 교육 강연 주요 내용 : 러시아의 사업, 프랜차이즈, 법률정보, 복합시설단지, 글램핑 시장
- 강연자 : 극동연방대 경제학과 교수, 애완동물 호텔 체인 CEO, 변호사, 도시계획 투자개발회사 사무국장, IT 기업 대표 등

«ЗАКОН О ФРАНЧАЙЗИНГЕ»		
Регламентирует условия передачи прав от франчайзера к франчайзи.		
ФРАНЧАЙЗИНГОВЫЙ БУМ		
В 2018 ГОДУ	ТОЧКИ ФРАНЧАЙЗИ	ФРАНЧАЙЗЕРЫ
2,3% Рост вВП	20 000 в 2018 году	1500 в 2018 году
ПОЧТИ НА 20% Рост франчайзинга	70 000 в 2019 году	2000 в 2019 году

- 러시아 정부기관(연해주, 블라디보스톡) 관계자 만남
- 참가자 : 연해주정부 국제협력국 국장, 연해주정부 부지사 (경제기업개발 관광 담당부), 블라디보스톡 시의회 의장



- 견학 프로그램 및 B2B 미팅
- 방문지: 아이스크림 공장, 유제품 생산시설, 물류단지, 호텔리조트/카지노, 복합시설단지 공사현장, 블라디보스톡 주요 지역



■ 2020년 러시아 비즈니스 스쿨(ROST (Russian-Asian Business School) 프로그램 안내

ROST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2020년 4월 러시아 비즈니스 스쿨 프로그램을 시행할 예정임. 이번 2020 ROST 프로그램에서는 ‘러시아: 새로운 시장과 비즈니스 기회’ 라는 주제로 지난해보다 좀 더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되어 진행될 예정임

■ “러시아: 새로운 시장과 비즈니스 기회” 2020년 비즈니스 교육

- 일정 :
 - 1) 참가자 모집 : 3월 30일까지 접수자에 한해 러시아 현지 기업 사전매칭 진행
 - 2) 4월 초 : 국내 참가 기업 대상 사전 설명회
 - 3) 4월 10일 : 참가 접수 신청 마감
 - 4) 4월 21일 : 출국 (인천 - 블라디보스톡)
 - 5) 4월 22일~24일(2박 3일) : 프로그램 진행
- 장소 : 사전 설명회 장소 공지 추후 예정
- 참가비 안내 및 기타 문의사항 :
 - juhwi.kim@northernlogis.kr
- 주요 프로그램 :
 - 2019년 프로그램 내용 참조(작년 참가 기업 11)

- 홈페이지 :
 - <https://asiarost.com/en>

2020년 1월 수출입 현황

('20.1월) 설날 명절 조업일수 감소(-2.5일)¹⁾로 수출은 433억 달러, 수입은 427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수출은 △6.1%(조업일수 고려한 일평균수출액은 4.8% 증가), 수입은 △5.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무역수지 96개월 연속 흑자)

[월별 수출입 현황]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누계	
수출	2019	금액	46,173	39,483	47,004	48,783	45,704	44,008	46,080	44,020	44,651	46,667	44,045	45,715	542,333
		증감률	△6.2	△11.3	△8.4	△2.1	△9.8	△13.8	△11.1	△14.0	△11.8	△14.9	△14.4	△5.2	△10.3
	2020	금액	43,349												43,349
		증감률	△6.1												△6.1
수입	2019	금액	45,132	36,617	41,985	45,040	43,633	40,110	43,745	42,455	38,737	41,390	40,720	43,698	503,259
		증감률	△1.5	△12.2	△6.5	3.1	△1.9	△10.9	△2.6	△4.3	△5.6	△14.6	△13.0	△0.7	△6.0
	2020	금액	42,729												42,729
		증감률	△5.3												△5.3
무역수지	2019	금액	1,041	2,866	5,019	3,743	2,071	3,898	2,335	1,565	5,914	5,278	3,325	2,017	39,074
	2020	금액	620												620

주 1. 증감률은 전년동기대비 수치임

주 2. 신고수리일 기준으로 연간 통계확정 시(2021년 2월)까지 일부 수치는 정정될 수 있음

출처 : 관세청

국내 수산물 수입 현황

■ 2019년 12월 수산물 수입가격 지수

냉동어류는 전년 동월 대비 전반적으로 수입 가격이 상승한 반면, 활어류 신선어류는 전반적으로 하락. 꽁치(냉동), 명태(냉동), 대게(산 것, 신선, 냉장)는 어획량 감소로 인해 전년 동월 대비 수입 가격 상승

□ 러시아산 명태 수입가격 비율 : 전년 동월 대비 +40.9%

□ 러시아산 대게 수입가격 비율 : 전년 동월 대비 +26.2%

[수산물 수입가격지수]

[2015년=100 기준]

구 분	'17년	'18년	2019년												전월 대비	전년동월 대비
	12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활어	100	96	94	94	97	93	93	91	92	90	91	89	87	83	(-5)	(-13.7)
신선어류	111	118	125	116	121	116	113	112	138	156	127	102	75	123	(62.7)	(3.7)
냉동어류	106	120	121	113	112	112	114	116	112	115	115	112	116	122	(5.3)	(1.3)
전체	97	106	108	101	102	100	101	101	104	110	103	94	89	102	(15.3)	(-3.7)

출처 : 관세청

1) 조업일수 : 2019년 24일에서 2020년 21.5일로 2.5일로 감소

■ 2019년 12월 주요 수산물 품목별 수입 현황(러시아, 일본)

구분	품목	국가명	중량(톤)	중량비(%)	증감률(%)	
					전월대비	전년동월대비
활어	돔	전체	242	100.0	10.6	38.8
		일본	222	91.8	22.3	42.2
신선어류	가리비(산 것, 신선, 냉장)	전체	728	100.0	16.1	15.0
		일본	642	88.1	27.3	10.8
	갈치(산 것, 신선, 냉장)	전체	21	100.0	▲34.3	▲26.7
		일본	21	100.0	▲34.3	▲20.2
	대게(산 것, 신선, 냉장)	전체	851	100.0	75.5	23.9
		러시아	851	100.0	75.5	23.9
명태(신선, 냉장)	전체	308	100.0	54.5	▲44.0	
	일본	304	98.6	53.8	▲43.8	
냉동어류	대구(냉동)	전체	4,125	100.0	67.4	70.8
		러시아	3,739	88.7	74.1	102.4
	명태(냉동)	전체	16,691	100.0	10.5	23.3
		러시아	16,247	97.3	30.7	20.0
	임연수어(냉동)	전체	668	100.0	▲38.5	81.1
		러시아	601	90.0	▲7.9	230.1

출처 : 관세청

러시아 선도개발구역 및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현황 (2020년 1월)

■ 선도개발구역

선도개발구역에 관한 연방법 발효('15.3.30) 이후 2020.1월 러 극동연방관구에 21개의 선도개발구역이 설치, 운영 중임

지역	연해주	하바롭스크주	아무르주	사할린주	사하공화국	캄차트카주	유대인자치주	추코트카자치주	부랴티아공화국	자바이칼주
수	4	3	3	3	3	1	1	1	1	1

【외국 입주 기업】

선도개발구역연방법 발효 이후 현재까지 (2020.1월 말) 총 427개의 국내외 기업이 선도개발구역 입주절차를 완료함(전체 입주기업 중 외국 참여 입주기업은 34개사)

국가	중국	일본	한국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리투아니아, 인도, 베트남, 네덜란드, 홍콩, 사이프러스
기업 수	11	6	5	3	2	1

■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블라디보스톡자유항에 관한 연방법('15.10월 발효) 및 동 개정연방법('16.7월 발효)에 따라 연해주, 하바롭스크주, 사할린주, 캄차트카주, 추코트카 등 22개 지자체를 블라디보스톡자유항으로 지정함

【외국 입주 기업】

전체 입주기업 중 외국 참여 기업은 65개사임

국가	중국	한국	일본	인도	싱가포르	영국, 독일 미국, 베트남, 대만, 홍콩, 합작기업2
기업 수	42	6	4	3	2	1

출처: 주 블라디보스톡 대한민국 총 영사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시행²⁾

최근 화물 운송 시장에서는 지난해 말 발표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시행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과로 및 과적, 과속 등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도입되었다.³⁾

이후 안전운임제는 화주 및 운수사업자, 화물차주, 공익 대표위원, 특별위원(국토부, 해수부, 산업부) 등으로 구성된 화물차 안전운임위원회에서 총 81회 논의를 거쳐 지난해 말 최종 의결하여 공표되었다.

안전운임제가 공표된 이후 언론사 및 관련 단체에서는 안전운임제에 대한 여러 의견을 기사화하고 있다. 그 예로 ‘무리한 운임 인상에 일자리 감소’, ‘부산항 환적화물 61만 TEU 감소 추정’, ‘글로벌 선사 한국탈출 검토, 영세운송사 줄도산 부를 수도’ 등이 기사화되어 안전운임제 시행에 대한 여러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특히 이와 관련해 담당 부서인 국토부와 해수부에서는 부산항 환적화물과 관련해서 현재 약 500명 가량 화물차 운전자가 연간 1,157만TEU 환적물량을 처리하고 있고 환적화물을 운송하는 화물 운전자는 선박 출항시간에 운송시간을 맞추어야 하는 직업 특성상 24시간 운행이 발생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년 동안 운임이 동결된 월 250만 원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어 안전운임제를 통한 운임 인상이 필요하다고 보도참고자료를 보도하였다.

특히 환적화물 물량 유지와 관련해서는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국토교통부, 항만공사, 선사, 운수사, 화물차주 등이 참여하는 TF팀 결성을 추진 중이며 부두운영 효율화, 부두 간 육로운송 최소화, 각종 지원 방안 등에 대한 대책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언급하였다.

이에 덧붙여 선사 및 화물차주 등과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안전운임제가 화물 운송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일축하였다.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제도 개요]

시행일	· 2020년 1월 1일(3년 일몰제, 2020년~2022년)
제도종류	· 화물차 안전운임제(위반 시 과태료 처분) · 화물차 안전운송원가제(화물운송시장에서 운임 산정에 참고)
운임유형	· 안전운송운임 : 화주가 운수업체 또는 화물차주에게 지급 · 안전위탁운임 : 운수업체가 화물차주에게 지급
적용대상	· 안전운임 :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수출입 컨테이너, 시멘트(BCT) · 안전운송원가 : 피견인 자동차(철강재)일반형 화물 자동차(해당 화물자동차로 운송할 수 있는 품목) ※ 신고대상은 안전운임(컨테이너, 시멘트)에 한함
처벌규정	· 화물차 안전운임보다 적은 운임을 지급하는 자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5백만원) · 불법적인 리베이트 방지를 위해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는 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신고센터	· 화물차 안전운임 위반자에 대한 효율적인 적발 및 단속을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에 화물자동차안전운임신고센터 설치·운영



자료 :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신고센터(<https://www.safetruck.go.kr/>)

2)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보도참고자료 참고 작성

3) 18.0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러시아 동향

■ 러시아 정부 코로나 바이러스 방지를 위한 극동지역 대책⁴⁾

미하일 미슈스틴 총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극동지역 러시아 국경 폐쇄 명령서에 서명했다. 정부는 2020년 3월 1일까지 중국과 국경 통관을 중단하기로 했다. 러시아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진자가 중국인으로 밝혀지면서 이로 인해 중국인 무비자 관광 및 취업비자 발급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연해주 내 4개 고등교육기관 총장들은 신종 코로나로 인해 중국 학생들의 방학 기간을 3월1일 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하였다. 블라디보스톡 내 극동연방대학교는 기존 방학 기간을 유지하며, 중국에서 귀국하는 유학생들에 대한 전수조사와 유증상자 격리조치를 시행한다. 아무르주 정부는 중국 헤이허 시 정부와 중국 내 체류 중인 러시아인의 귀국을 위해 추가로 국경을 개방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 알렉산더 코즐로프 러시아 극동개발부장관, 주 러시아 한국대사와 회담⁵⁾

알렉산더 코즐로프 러시아 극동개발부 장관과 이석배 주 러시아 한국대사는 2019년 결과와 2020년 향후 계획을 논의하였다. 2019년 11개월 동안 극동과 한국의 무역은 7.5% 증가하여 93억6천 달러에 달했다. 현재 러시아 선도개발구역과 블라디보스톡 자유무역항에 투자한 한국 자본은 11개 프로젝트로 2020년도는 이보다 더 증가시키는 것이 목표이다. 예를 들어 2019년 12월 13일 “LH공사”는 나테진스카야 산업 지역에 산업공원 조성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석배 대사의 말에 따르면 30개 이상의 한국 기업들이 이 프로젝트에 참가하여 해당 지역 입주 예정이다. 2020년 9월 블라디보스톡에서 개최 예정인 제6회 동방경제포럼에서 산업공원 개장을 할 수 있도록 바라고 있다. 한국 투자자들을 위한 국제 의료클러스터의 전망과 한러 협력 포럼의 러시아 정상 회의 조직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양측은 2020년 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가까운 시일 내에 한 번 더 회담을 개최하기로 하였다.

■ 러시아 사할린 수산물 환적항 계획 논의⁶⁾

태국의 EAG Holdings(Empire Asia Group)은 러시아 사할린에 수산물 환적항 건설에 대한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 러시아 사할린 코르사코프시에서 시행될 프로젝트로, 항구 내에서 한꺼번에 8만 5천 톤의 수산물을 보관할 수 있는 수산물 환적항 건설을 계획 중이다. 해당 프로젝트에는 수력발전을 위한 건축 시설 재건도 포함한다. 선박의 견인과 수리도 이곳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이 프로젝트의 투자 규모는 1억 5천만 달러로 추산된다.

■ 러시아 - 북한 철도운행 일시 중단⁷⁾

러시아와 북한을 오가는 여객 열차 운영이 일시 중단되었다. 2020년 2월 3일부터 러시아 하산과 북한의 두만강 역을 오가는 여객 열차와 직통열차 운영을 일시적으로 중단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우수리스크 - 두만강, 모스크바 - 평양, 모스크바 - 두만강, 하바롭스크 - 평양 구간 직행 열차 운행도 일시 중단한다. 지난 12월 말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이러한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4) <https://www.kremlin.ru/events/president/news>, <https://www.breal.org/a/30406164.html>

5) <https://minvr.ru/press-center/news/24299/>

6) <https://www.investvostok.ru/news/3137/>

7) <https://www.pnp.ru/economics/rossiya-priostanovila-zheleznodorozhnoe-soobshhenie-s-kndr.html>

북미항로 동향

■ 미중 무역전쟁 여파 북미항로 10년 만에 마이너스 성장⁸⁾

북미수출항로 물동량이 10년 만에 감소세를 기록했다. 미국 통관조사기관인 피어스에 따르면 아시아 18개국발 미국행 컨테이너 물동량은 1,764만 8,828만TEU를 기록, 2018년의 1,788만 TEU에 견줘 1.3% 감소했다. 북미 수출항로 물동량이 마이너스 성장한 건 2009년 이후 10년 만이다. 2009년엔 미국발 금융위기 여파로 14.8%의 두 자릿수 감소세를 기록했었다.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로 중국의 소비재 제품 수출이 급격하게 줄어든 게 물동량 부진의 원인이다. 미국 기업은 수입처를 베트남 등 동남아 지역으로 다변화했지만, 중국의 부진을 상쇄하지 못했다.

지난해 최대 점유율의 중국발 화물은 9.6% 감소한 1,055만 191TEU에 머물렀다. 중국발 화물이 하락세를 띤 건 2011년 이후 8년 만이다. 감소폭은 2011년(-0.2%)에 비해 매우 높다. 특히 가구 전기 제품 자동차 등이 직격탄을 맞았다. 중국은 전통적으로 ‘밀어내기 수요’가 몰리는 12월에도 29%의 폭락을 맞았다. 중국의 점유율은 2018년 65%에서 지난해 60%로 급락했다. 반면 2위 베트남발 화물은 34.5% 늘어난 159만 1,611TEU를 기록했다. 베트남은 지난해 미중 무역분쟁의 수혜를 크게 입은 곳 중 하나다.

지난 2015년 우리나라를 제치고 북미항로 2위 선적국 지위에 오른 베트남은 기업들이 미국의 관세 폭탄을 피해 생산기지를 중국에서 대거 이전해 오면서 30%가 넘는 폭발적인 성장을 일궈냈다. 가구와 섬유 신발 등이 고공행진을 벌였다. 베트남을 포함한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수출화물은 26.1% 늘어난 345만 8,059TEU를 일궈냈다. 미얀마 114.7%, 캄보디아 48.7%, 말레이시아 26.9%, 싱가포르 22.2% 등 아세안 회원국 대부분이 고성장을 신고했다.

3위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화물은 7.6% 늘어난 91만 2,847TEU를 기록했다. 2017년 마이너스 성장(1.8%↓)했다가 2018년 반등(3.7%↑)한 뒤 2년 연속 성장곡선을 그렸다. 자동차부품과 타이어·튜브 등이 강세를 띠었다. 다만 12월에 8.5%의 뒷걸음질 행보를 보여 향후 흐름에 빨간불이 켜졌다.

4위 인도발 화물은 10% 늘어난 81만 9,020TEU였다. 2017년 이후 3년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이다. 최근의 흐름에 미뤄 오래지 않아 3위 자리를 놓고 우리나라와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5위는 대만으로, 8.8% 늘어난 71만 3,404TEU를 미국으로 실어 보냈다. 6위 태국발 화물은 18.8% 늘어난 67만 1,502TEU였다. 태국은 2018년까지 일본보다 10만 TEU가량 뒤진 성적을 냈지만 1년 만에 20%대에 가까운 성장률로 일본을 따돌리고 한 계단 순위 상승을 이뤘다. 일본은 0.3% 늘어난 66만 8,478TEU로, 7위에 머물렀다.

북미항로 10대 선적국가

(단위: TEU, %)

구분	중국	베트남	한국	인도	대만	태국	일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홍콩	합계
물동량	10,550,191	1,591,611	912,847	819,020	713,404	671,502	668,478	429,108	382,036	248,303	17,648,828
증감	-9.6	34.5	7.6	10	8.8	18.8	0.3	10.9	26.9	-17.4	-1.3

8) 출처: 코리아 쉬핑가제트 보도자료 및 참고자료

■ 자유무역지역 (Free Trade Zone)⁹⁾

자유무역지역은 한 국가 내에서 교역, 생산, 투자 등의 경제활동에 대해 비관세 등 예외적인 조치를 허용해 주는 특정 지역이다.

- 생산중심형 자유무역지역 : 제조업 부문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를 활성화할 목적으로 설치 (마산, 군산, 동해 자유무역지역 대만의 수출가공구 등)
- 교역중심형 자유무역지역 : 국제교역 활동상의 규제완화를 통해 무역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설치(독일의 함부르크,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및 로테르담항 등)
- 생산, 교역복합형 자유무역지역 : 교역형과 생산형의 혼합형으로 모든 경제적인 활동이 가능 (미국의 자유무역지역, 홍콩, 싱가포르)



우리나라의 자유무역지역은 생산중심의 산업단지와 물류중심의 항만, 공항 배후 물류단지로 구분할 수 있다.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은 수출증진, 고용 창출 및 기술이전과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산업단지에 지정되며 특히 제조업 분야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가 주목적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권리권자이고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자유무역지역 관리원에서 직접 관리한다.

물류형 중심의 자유무역지역은 입지적 장점을 활용하여 항만, 공항, 배후단지에 지정되며 무역과 물류활동 촉진이 주요 목적이다. 부산항, 광양항, 인천항, 평택 당진항, 포항항 인천국제공항 등 물류형 자유무역지역은 해양수산부(항만형) 국토교통부(공항형) 장관이 권리권자이고 항만공사 및 공항공사 등의 기관이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관리한다.

■ (재)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 월간동향 만족도 조사

안녕하십니까.

본 조사는 (재)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 제공 중인 “월간동향”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입니다.

우리 센터에서는 주기적(월 1회)으로 북방물류, 강원권 물류 등의 동향을 파악하여 관련 분야 종사자분들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고객만족도 조사를 시행하오니 구독자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설문조사는 <https://forms.gle/ZkQC7UiqQYoNkQMp6> 또는 오른쪽의 QR코드를 통해 참여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재)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
담당 : 물류연구기획팀
☎ : 033-522-6503

9) 산업통상자원부